

벤처산업협회 통합출범식 개최

- 벤처산업협회와 한국IT기업연합회, 「벤처산업협회」로 통합
- 벤처업계 한 목소리 낼 창구 갖춰 제2 벤처 부흥 기틀 마련
- 3천2백여 회원 중심 '연중 1만 명' 고용창출 참여도 밝혀



벤처산업협회(회장 백종진)와 한국IT기업연합회(회장 서승모)가 NEW KOVA로 하나가 되어 제 2 벤처의 부흥기틀을 마련한다. 협회와 한국IT기업연합회는 8월 20일 오후 강남 역삼동 소재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합동 임시총회 및 통합출범식을 개최, 단체통합을 선언하였다. 양 단체는 신정부 정부조직 개편 이후 통합 협의를 계속해오다 지난 7월 23일 통합에 합의하고, 8월 8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주재 벤처기업간담회에서 통합 「벤처산업협회」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다.

양 단체는 그동안 3만여 벤처기업과 2만여 IT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격 경제단체로 활동하며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힘써왔으나, 최근 새로운 시장창출에 집중하자는 업계의 여론에 따라 이와 같이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아울러 통합을 통해 벤처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전통산업과 융복합을 선도하는 사업에 주력하여 벤처기업이 명실공히 지식·혁신주도형 산업강국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

양 단체는 통합단체명을 벤처산업협회로 정하였다. 서 회장은 “IT·BT·NT 등 업종별 벤처

● 백종진 벤처산업협회 공동회장 인사말



오늘 벤처산업협회가 창립 11년 8개월여 만에 한국IT기업연합회와 통합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코스닥시장 개장, 벤처특별 제정 등 벤처붐이 조성되는 데 필요한 초석을 마련했고, 이후에는 <벤처 건전화 방안>, <벤처 활성화 방안> 등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반석을 놓는 데 힘써왔습니다.

한편, 벤처산업이 팽창하면서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별, 지역별 협의체 다수가 결성되어 현재는 40여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많은 벤처 유관단체들이 설립되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벤처업

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제 2의 도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제 2 벤처시대 개막>을 선언한 바 있는 협회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명칭부터 <벤처산업협회>로 개명하고, 통합을 조심스럽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즈음 단체통합에 선뜻 화답해준 분이 바로 <한국IT기업연합회> 서승모 회장입니다. 회장님은 오래 전부터 벤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의 단체통합이 필요함을 역설해온 분입니다.

이제, 두 단체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벤처업계를 대표하던 두 단체가 하나로 결합한 만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제 2의 벤처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제 2 경제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지켜봐주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을 망라하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단체명을 벤처산업협회로 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 이후 2009년 2월까지 공동회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다른 유관단체들과의 유기적 연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 회장은 “통합단체는 장기적으로 벤처와 관련한 업종별·지역별 유관단체들과의 점진적 통합 및 연합을 이루어 대한민국 신경제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단체는 20일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통합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기존 벤처산업협회는 통합에 따른 추가사업 승인 건을 중심으로 총회를 개최하고, IT연합회는 산회를 중심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양 단체 회원들은 오후 6시부터 한자리에 모여 <통합출범식>을 갖고 <New KOVA의 역할과 위상>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뉴IT 전략’과 ‘제2벤처정책’에 발맞춰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산업군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하였다. 협회는 통합된 3천2백여 회원을 중심으로 연중 1만 명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하였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날 통합출범식에는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 구로구청 양대웅 청장 등이 참석하여 통합을 축하해 주었다. 유관단체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우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재단 김용근 이사장,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성욱 원장,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박경수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벤처산업협회 초대 회장이자 산업기술재단 이민화 이사장 등도 함께 하였다.

● 서승모 벤처산업협회 공동회장 인사말



요즘 주변에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통합된 NEW KOVA가 올림픽 금메달 소식만 큼이나 반가운 소식들을 국민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IT융합 첨단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지식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해외수출에 앞장섬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거울삼아 국민이 신뢰하는 벤처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피우고 열정으로 도전하는 벤처시스템 벤처2.0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겠습니다.

그 속제를 푸는 단초는 바로 흩어진 벤처단체의 통합이라 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벤처산업협회 KOVA가 먼저 손을 내밀고 벤처업계의 대통합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기술중심의 모든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제 ‘벤처’라는 하나의 브랜드안에 다 들어와야 합니다. 업종별-지역별 벤처단체들도 더 큰 목적을 위해 통합의 대열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우리 KOVA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오늘을 시점으로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경제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우리 벤처기업인이 함께 노력하면 그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